

# 광주 고려인마을, '특화 거리'로 재탄생한다

### 집단 정착 10년... 벽화 설치하고 우호센터·문화체험관 조성 시, 열악 환경 개선... '부산 차이나타운' 같은 명물 만들기로

광주 최초 이주민 집단 정착지인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마을' 조성 10년을 맞아 광주시가 이 일대를 '부산 차이나타운'과 같은 특화의 거리로 조성한다.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고려인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자녀교육과 언어문제 해결 등 고려인들의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다양한 시책들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27일 광주시와 고려인종합지원센터(이하 고려인센터)에 따르면 다음달까지 고려인들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고려인마을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우선 고려인마을 입구에 표지석과 벽화를 설치하고 도로와 가로등을

정비하는 등 거리환경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 고려인 음식점 간판 정비를 통한 음식거리 조성 등으로 이 일대를 고려인타운으로 조성해 나간다는 목표다. 현재 고려인이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은 10여곳이다.

국비 공모를 통해 약 30억원 규모의 한·고려인 우호센터(가칭)를 만들고, 이와는 별도로 고려인들의 역사를 살필 수 있는 전시실과 고려인들의 의상, 음식, 풍습 등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체험관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또 고려인마을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고려인들의 애환과 유랑의 역사가 담긴 민속춤 등을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다.

광산구 월곡동 일대는 10여년 전 이 일대 공단 취업을 위해 이주한 고려인들이 집단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고려인마을'로 형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2005년 고려인들의 대대로 불리는 신조야 씨가 고려인 공동체 대표를 맡고, 그해 고려인 30세대가 월곡동으로 집단 이주한 것이 계기가 됐다. 지난 2008년 200여명 수준이던 고려인센터 등록 고려인도 지난해 말 1500명으로 7년 사이 7배 이상 급증했다. 고려인센터는 미등록자를 포함해 지역에만 3000여명의 고려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지난 2013년 전국 최초 '광주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지난해 9월에는 '고려인센터'를 설립하는 등 지역 고려인 지원에 나서면서 전국에서 방문객들이 찾고 있다. 하지만 월곡동 일대 주택가가 노후화되고, 안내소조차 없어 문제로 지적돼 왔다. 특히 등

록 고려인 중 절반 가량이 일용직 근로자로, 30%가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등 대부분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광주시는 고려인들의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자생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지원 사업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체류기간 제한 등 비자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고려인들을 위해 관련부처와 협의해 국회에 계류중인 '고려인 동포 지원법' 개정을 건의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 통역사 등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의료, 언어, 자녀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고려인들이 고려인마을을 자생적으로 꾸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여전히 불편한 시설로 바라보는 지역 주민과 고려인들이 한데 어우러질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문화전당서 신나는 봄축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봄마당 축제 '봄(Spring), 봄(seeing), 봄(boom)'이 지난 26일 전당 내 야외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축제에선 인기 그룹 '데이브레이크'가 공연을 펼쳤으며, 문화전당은 앞으로 6주간 매주 토요일 대체로운 행사를 열 계획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문힐 뻔한 친딸 성폭행 사건 검찰수사로 2년만에 드러나

### 기록 검토 중 가출원인 등 의문 경찰에 보완수사 지휘

### 인면수심 아버지 구속기소

자칫 문힐 뻔한 10대 친딸 성폭행 사건이 2년 만에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자신의 10대 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학대한 A(49)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친권을 박탈 하도록 친권상실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7월과 9월께 집에서 자고 있는 친딸 B양(17·피해 당시 15세)을 2차례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14년 3월2일부터 8월20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B양의 옷을 벗긴 뒤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 기간 동안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B양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려 고막을 터뜨리는 등 구타·학대한 혐의(아동학대)도 받고 있다.

이같은 인면수심 아버지의 친딸 성폭행 사건은 자칫 문힐 뻔했다.

A씨로부터 딸 가출 신고를 받고 수사를 해 온 경찰은 B양을 보호하고 있던 20대 여성 C씨를 입건해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 기록을 검토하던 검찰은 B양이 성병에 걸린 진단서가 있고 몸에 상처가 있는 점을 수상히 여겨 가출 원인 등을 정확히 밝히라며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휘했다.

또 B양을 보호하고 있던 C씨로부터 '아빠가 성폭행을 해서 가출했다고 하더라'는 진술을 받아내고, B양과 아버지 A씨에 대한 조사 끝에 성폭행과 학대 사실을 밝혀냈다.

순천지청 관계자는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피고인 통합심리분석 등 과학 수사를 통해 자칫 문힐 뻔한 아동 성폭행 사건을 밝혀낸 점에 의미가 있다"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종합적인 피해자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 무면허 뺑소니 사망사고 내고 해외 도피 기도 필리핀인 영장

영암경찰청은 27일 무면허 상태로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고 해외로 도주하려던 혐의(도주차량)로 필리핀 국적 불법체류자 A(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새벽 5시38분께 영암군 신북면 아천리 한 교차로에서 자신이 몰던 대포차로 경운기를 몰고 가던 임모(78)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광주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A씨는 사고 직후 출국을 위해 김해공항으로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암=대성수기자 dss@

### 고가도로 보호벽 충돌 전복 20대 승용차 운전자 숨져

27일 새벽 4시40분께 광주시 남구 송하동 송암고가에서 황모(27)씨가 몰던 스포티지 승용차가 차랑 추락방지용 보호벽과 충돌해 전복됐다.

이 사고로 운전자 황씨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다른 탑승객은 없었다. 휴일 새벽 차랑 통행이 드문 시간에 발생한 사고여서 2차 사고로는 연결되지 않았다.

경찰은 황씨가 몰던 차랑이 나주, 백운동 방향으로 나뉘는 지점을 충격한 사실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 불난 아파트 홀로 있던 아이 구한 이웃들

### 베란다로 도피...현관문은 잠겨 있어 주민들 합심 아랫집 베란다 통해 구조

불이 난 아파트에 혼자 있던 8세 어린이를 주민들이 힘을 합쳐 무사히 구조했다.

지난 25일 오후 6시10분께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 4층 A(8)군의 집에서 불이 났다. 아버지는 회사에, 어머니는 형을 학원에 보내려고 집을 비운 사이 여덟살짜리 어린이가 혼자 있던 집에 불이 난 것이다.

불은 거실 바닥에 놓인 전선에서 시작됐다. 전선에서 불꽃이 몇 번 일더니 곧 장 옆에 있던 쓰레기로 옮겨붙었다.

A군은 처음엔 혼자 힘으로 불길을 잡으려고 물을 한 컵 떠다가 불이 난 곳에 뿌렸다고 한다. 하지만, 전기 누전으로 시작된 불은 금세 집안 곳곳으로 번졌고 현관으로 가는 통로마저 불길에 막혀버렸다.

생명을 위협을 느낀 A군은 베란다로 빠져나가 울면서 구조를 요청했고 그때 집 아파트 상가 주인 등 주민들이 이 광경을 목격했다.

주민들은 현관을 통해 들어가 A군을 구하려고 했지만 문이 잠긴 탓에 여의치 않자 한 층 아랫집 베란다로 갔다. 주민 한 명이 베란다를 통해 위층으로 올라가 A군을 아래층 베란다에 있던 주민들에

게 내려보내면서 긴박했던 구조는 마무리됐다.

불은 A군의 집 일부를 태워 2000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20여분만에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진화됐다.

소방서 관계자는 "아파트 주민들이 정말 큰일을 했다. 몇 분만 구조가 늦었더라면 정말 큰일 날 뻔 했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 숙식 해결하려고...산불 내고 교도소 간 30대



○...교도소에 들어 가면 숙식은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설 명절 전날 밤 산불을 낸 30대가 교도소행.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지난 2월7일 오후 7시20분부터 오후 9시30분 사이 광양시 광양읍의 임야에 불을 지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장모씨(35)에게 징역 3년을 선고.

○...재판부는 "장씨는 일자리가 없어 생활이 힘들다는 이유로 총 42회에 걸쳐 산불을 내 1500m의 산림을 태웠다"며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방화는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커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 /순천=김은종기자 ejkim@



## 자꾸 눈물이 흐르나요?



**유루증 : 눈물이 넘쳐 흘러서 눈 밑이 젖는 상태**  
가벼운 증상은 눈가에 눈물이 고이는 정도이나 증상이 심할 경우 바깥으로 눈물이 흐르고 눈곱이 끼거나 고름이 나오기도 하며, 눈가 짓무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치료방법 : 검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여 비정상 위치에 있는 속눈썹 제거, 약물 투여, 비루관 개통·확장술, 외과적인 수술 등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과 스키마일 / 라식 / 라섹 / ICL / 백내장 / 녹내장 / 망막 / 눈성형 / 노안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희망은  
언제나 있습니다

# 법인회생

### 법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회사·병원 등 법인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법인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 대표변호사 곽민섭

- 광주지법 해남지원 지원장·부장판사
- 광주지방법원 판사 (회생 및 파산업무)
- 특허법원 판사
- 법학박사, 경제학석사
- 세무사, 변리사

함께 이루는 밝은 세상  
법률사무소 희망미래 062·228·2266